

2024학년도 모의논술고사

인문계열



성명	
전형	
수험번호	



2024학년도 인문계열 모의논술고사 인문계열

[문제 1] 다음 제시문을 읽고 아래 문제에 답하시오.

(가)

존중의 가치를 가로막는 이상한 풍조가 널리 퍼져 있다. 냉담과 경멸, 날 선 비판과 냉소주의, 타인을 깔아내리는 언어가 이 시대의 주류가 되어가고 있다. 남과 다르게 생각하는 이들은 조롱당하며 약자들은 경멸당한다. 냉철함은 추구해야 할 사고방식이며, 자기중심주의는 사회적 이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진실하고 따뜻하고 세밀한 감정 표현은 오간 데 없고 어느새 인위적으로 표준화된 디지털 상품으로 대체되어버렸다. 진솔한 미소 대신 스마일 아이콘을 사용하고 깊은 감정의 표현 대신 이모티콘을 사용한다.

하지만 인간은 여전히 사랑과 칭찬이 필요하다. 선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갈망과 샘솟는 감정 표현에 대한 목마름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은 갈망, 동정심과 연민을 구하는 욕구 그리고 사랑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존중이 필요한 이유다.

존중이 결핍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존중 결핍의 문제는 자기의 가치를 의심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이 낮아지는 것에만 있는 게 아니다. 이는 심리적 문제를 일으켜 관계의 어려움을 느끼게 하며 공격 성향을 증폭시킨다. 자살이나 가정 폭력에서부터 테러 범죄에 이르기까지 자기 공격 성향을 포함한 광범위한 형태의 공격 행동들 역시 존중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존중이 결핍된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지기 때문에 타인을 비하하곤 한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다. 존중이 없는 문화에서 자애로운 상호작용을 발전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타인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얼마나 건설적인가 하는 것이다. 긍정적 비판은 매우 소중하지만 파괴적인 비판은 그렇지 않다.

존중의 가치가 실현되는 환경은 한 개인의 건강한 자존감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또한 그 반대로 안정적인 자존감을 가진 사람만이 주변 사람이나 환경에 대한 가치를 인식할 수 있다. 존중은 타인에게만큼 나 자신에게도 필요한 것이다. 존중을 바탕으로 한 상호작용은 오늘날 흔히 우리가 말하는 서로 '윈윈(win-win)'하는 결과를 불러온다. 존중을 '기적'이라 부르는 것이 오글거리거나 혹은 진부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한번 존중의 태도를 시도해보고 그 효과를 느껴보길 바란다. 아마도 놀라움을 경험할 것이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거나 애정과 위로 또는 단순한 존경을 표할 때도 기분이 좋아진다. 어쩌면 기적이라는 말을 의심하는 우리의 마음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

진정한 인정이 우리의 삶을 강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가정과 학교는 물론이고 직장에서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 존중을 기반으로 한 기업 문화와 직원 개개인을 인정하는 시스템이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여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는데도 그렇다. 부부 갈등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서로 너무 안 맞아서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분명한 사실은 외면한다. 매일 피할 수 없는 일상적인 마찰 속에서 상호 존중은 어느덧 사라지고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하지만 서로 의식적으로 친밀함과 존중 그리고 다정함을 바탕으로 한 태도를 실천하다 보면 아주 많은 것들이 해결되거나 성취될 수 있다. 존중은 겁쟁이나 나약한 이들, 까탈스러운 사람이나 신경증 환자를 포근하게 안아주고 감싸주는 주제 정도로 인식되기도 한다. 존중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고



2024학년도 인문계열 모의논술고사 인문계열

자명한 이치임에도 사람들 간의 일상적인 만남에서 무시되고 사회적으로도 하찮게 여겨지고 있다. 존중의 문화가 시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가치는 오히려 더 많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공감이나 동정, 자비와 같은 인간적인 감정이 힘을 얻고, 우리의 본질적인 가치가 비로소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

- 라인하르트 할러, 책 제목 생략 -

(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 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 김춘수, 꽃 -

(다)

[앞의 줄거리: 유희가 아들의 배필을 구하다가 사급사 댁의 딸 사정옥이 마음에 들어서, 매파를 보내 사급사 댁으로 보냈다.]

사급사 댁의 부인이 매파를 불러들이니, 매파가 먼저 유희 집안의 부귀와 권세를 이야기하고, 그다음으로 아들 유연수가 똑똑하고 풍채가 빼어남 것을 언급한 뒤 말했다.

“내로라 하는 집안에서 구혼하는 자가 매우 많았으나, 유희 어른께서는 댁의 따님이 매우 아름답고 현숙하다는 말을 듣고서 제게 뜻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부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인은 매우 기뻐다. 곧장 딸의 방으로 가서, 매파가 온 뜻을 자세히 말했다.

“나는 더 없이 좋지만, 정옥이 네 뜻은 어떤지 모르겠구나.”

사정옥이 소리를 낮춰 대답했다.

“유희 어른은 여진 재상이니 그 집과 혼인하지 못할 까닭이 없지요. 그런데 군자는 덕(德)을 숭상



2024학년도 인문계열 모의논술고사 인문계열

하고 색(色)을 가볍게 본다고 했습니다. 또한 어진 부인들은 덕으로 남편을 섬기고, 군자는 색으로 아내를 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매파가 말한 것은 색이었습니다. 또 매파는 유씨 집안의 부귀와 권세를 크게 칭송했을 뿐, 우리 집 돌아가신 아버님의 맑은 이름과 곧은 절개는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매파가 어리석어서 유희 어른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듯합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유희 어른이 어질다는 말은 헛소문이겠지요. 저는 그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부인은 평소 딸을 기특하게 여기고 사랑했으므로 반대하지 않았다. 매파에게 말했다.

“곤궁한 집 딸아이가 귀하신 댁의 며느리가 되는 것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네. 게다가 유희 어른께서 딸아이의 자색을 잘못 들으신 듯하네. 가난한 집에서 손수 길쌈하며 자란 아이니, 조금 배웠다고 한들 어찌 감히 부귀한 집안의 딸에 비하겠나? 혼인한 뒤에 딸아이가 듣던 바와 같지 않다고 하여 큰 죄를 얻을까 걱정되니, 그대는 모름지기 이런 뜻을 잘 전해주시게.”

매파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온갖 방법으로 설득했으나, 부인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매파가 돌아와 유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소상하게 아뢰자, 유희는 오랫동안 깊이 생각하더니 말했다.

“자네, 사급사 댁에 가서 뭐라고 말했나?”

매파가 말한 내용을 자세히 전했다니, 유희가 웃으면서 말했다.

“내가 소홀하여 말할 바를 상세히 가르치지 않아 저 집이 의심했구나. 자네는 물러가게.”

다음날 유희는 몸소 고을 현령을 찾아가 말했다.

“사급사 댁에 처자가 있다고 하여 제가 구혼하려고 매파를 보냈는데, 아마도 매파가 제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듯합니다. 바라건대 현령께서 사급사 댁에 가서 제 뜻을 잘 전달해 좋은 인연이 맺어지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제게는 이보다 더 큰 행운은 없을 것입니다.”

“유희 어른께서 부탁하시니 마땅히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저 집에 가서 무슨 말을 할까요?”

“별다른 것 없습니다. 그저 ‘내가 혼인을 바라는 것은 오직 돌아가신 사급사의 맑은 덕을 흠모해서이고, 또 그 딸은 부덕(婦德: 부녀가 지켜야 할 덕)이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한다면 됩니다.”

“잘 전하겠습니다.”

현령은 유희와 헤어진 후에 관아 사람을 사급사 댁으로 보내 다음날 직접 찾아갈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부인은 ‘반드시 혼사 때문이리라’ 생각하고 집안을 청소하고 그를 기다렸다.

다음날 현령이 오니, 사정옥의 유모가 절하며 말했다.

“나리께서는 어찌 오셨는지요?”

“어제 유희 어른께서 관아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에게 구혼하는 곳이 많았으나 뜻에 맞는 곳이 없습니다. 제가 사급사 댁 따님이 정숙하며 부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더욱이 사급사의 맑은 이름과 곧은 절개는 제가 흠모해왔습니다. 매파를 보내 구혼했지만 답을 얻지 못하였지요. 매파가 나의 뜻을 그릇 전달한 듯합니다. 현령께서 중매하여 혼인을 이루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네. 그래서 내가 이곳에 왔으니 이 뜻을 부인에게 고하시게네나.”

유모가 들어가 부인에게 아뢰고 다시 나와 부인의 말을 전했다.

“현령께서 이렇게 수고로움을 잊고 오셨으니 몸둘 바가 없습니다. 유희 어른 댁과의 혼사는 잘 감당할 수 없을까 걱정이었지, 어찌 다른 뜻이 있었겠습니까.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현령이 돌아온 즉시 편지를 써서 유희에게 전달했다. 유희는 매우 기뻐하며, 좋은 날을 가려 혼사를 이루었다. 결혼식 날, 아들 유연수가 신부를 맞이하는데, 사정옥의 참된 모습과 아름다운 예절을 칭찬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 김만중, 사씨남정기 -



2024학년도 인문계열 모의논술고사 인문계열

[문제 1-1] (가)를 요약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나)에서 ‘나, 너, 우리’의 관계를 연계하여 서술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문제 1-2] (다)의 상황을 요약하고, (가)의 ‘존중’을 바탕으로 ‘사정옥’이 취한 존중과 ‘유희’가 취한 존중에 관해 차례대로 서술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2024학년도 인문계열 모의논술고사 인문계열

[문제 2] 다음 제시문을 읽고 아래 문제에 답하시오.

(가)

조선거구에서 1인을 선발하는 다수제 공식은 단순다수제(plurality system), 결선투표제(runoff system)와 선택투표제(alternative voting system)를 포함한다. 단순다수제에서 유권자는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후보에게 1표를 행사한다. 단순다수제에서 최다득표자는 과반수의 표를 얻지 않아도 당선된다. 결선투표제에서는 후보가 당선되기 위해서 과반수의 표를 확보해야 한다. 과반수를 확보한 후보가 없는 경우, 1위 후보와 2위 후보만 참가한 결선투표를 치러 둘 중 더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된다. 선택투표제에서는 유권자가 후보들에 대한 선호의 순서를 표시한다. 선택투표제에서는 결선투표제에서와 마찬가지로 과반수의 1순위 표를 확보한 후보가 당선된다. 1순위 표의 과반을 얻은 후보가 없는 경우, 과반을 얻은 후보가 결정될 때까지 1순위 표를 이양한다.

<표 1> 11명 유권자들의 네 정당 후보에 대한 선호

	정당 A 후보 갑	정당 B 후보 을	정당 C 후보 병	정당 D 후보 정
유권자 1	1	2	3	4
유권자 2	1	2	3	4
유권자 3	1	3	2	4
유권자 4	1	3	2	4
유권자 5	3	1	2	4
유권자 6	4	3	1	2
유권자 7	2	4	1	3
유권자 8	3	2	1	4
유권자 9	4	3	2	1
유권자 10	4	3	2	1
유권자 11	4	3	2	1

<표 1>은 11명의 유권자들이 네 정당의 후보들에 대한 선호를 보여준다. 예컨대, 유권자 1은 갑, 을, 병, 정 순으로 후보를 선호한다. 단순다수제에서 유권자들이 자신의 선호에 따라 투표한다면, <표 1>에서 1순위 선호가 가장 많은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 선택투표제에서는 유권자들이 1부터 4까지의 선호를 명부에 기입한다. 당선자를 결정하기 위해 선택투표제에서는 먼저 1순위 표의 과반을 얻은 후보가 있는가를 검토한다. <표 1>에서 1순위 표의 과반을 얻기 위해서는 1순위 표를 6개 이상 얻어야 한다. <표 1>에서 후보 갑은 1순위 표 4개를 얻어 가장 많은 표를 얻었으나, 1순위 표가 과반에 미달하기 때문에 당선되지 못한다. 이처럼 1순위 표의 과반을 확보한 후보가 없는 경우, 가장 적은 수의 1순위 표를 얻은 후보를 먼저 낙선시킨다. <표 1>에서 후보 을이 유권자 5로부터 1순위 표 하나만 받았으므로 후보 을의 낙선이 확정된다.

단순다수제에서는 낙선 후보에게 던진 표가 사표로 버려지지만 선택투표제에서는 낙선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의 1순위의 표가 버려지지 않고 활용된다. 낙선 후보에게 1순위 표를 던진 유권자의 표는 이 유권자가 2순위 표를 던진 후보들에게 이양된다. 예컨대, <표 1>에서 후보 을에게 1순위 표를 던진 유권자 5의 1순위



2024학년도 인문계열 모의논술고사 인문계열

표는 유권자 5가 2순위 표를 던진 후보 병에게 이양된다. 이처럼 1순위의 표를 이양하면, 후보 병은 후보 을로부터 이양 받은 1순위 표 1개와 자신에게 행사된 1순위 표 3개를 합한 4표를 얻게 된다. 이 단계에서 후보 갑과 정은 모두 1순위 표를 이양 받지 못했으므로, 이들은 각각 4개와 3개의 1순위 표를 얻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도 과반의 1순위 표를 얻은 후보가 없다. 이럴 경우, 남아 있는 세 후보들 중 1순위 표를 가장 적게 받은 후보 정을 제거하고, 이 후보에게 1순위 표를 행사한 유권자의 표를 같은 방식으로 이양하여 당선자를 결정한다.

(나)

정치 양극화가 이슈다. 정치갈등이 문제로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중략) 양당 체제의 강화와 제3 정치 세력이 부재한 정치권 그리고 네거티브 정치와 진영논리에 따른 팬덤 정치가 맞물려 갈등의 정도가 격화됐다. 대화, 소통, 협치, 합의는 설 자리가 없다. (중략) 본 조사에서는 정치 양극화를 정당별 지지도의 관점에서 파악했다. 우선 전체 응답자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지지 정당 별로 나누고 응답자가 각 정당을 어느 정도 지지 또는 반대하는지를 11점 척도(-5점 ‘매우 반대’, 0점 ‘중립’, +5점 ‘매우 지지’)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양당의 지지도는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국민의힘을 “매우 반대”하는 사람은 65%였다.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는 62%가 더불어민주당을 “매우 반대”했다. 즉 한 정당의 지지층이 상대 정당을 매우 강하게 반대하는 “양극화된 선호”가 나타났다.

출처: “정치 양극화, 선거제도의 문제인가” 한국일보 2023년 2월 25일자 기사.



2024학년도 인문계열 모의논술고사

인문계열

[문제 2-1]

유권자들이 <표 1>이 보여준 선호에 따라 투표한다면 단순다수제와 선택투표제에서 각각 당선되는 후보가 어떤 후보인가를 답하시오. 이 질문의 답에 대한 이유를 (가)문에 제시된 당선 기준을 통해 설명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문제 2-2]

<표 1>의 네 후보 중 어떤 두 후보가 (나)에서 제시된 “양극화된 선호”를 얻었습니까? 이 질문의 답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단순다수제와 선택투표제 중 어떤 선거제도가 “양극화된 선호”를 가진 후보에게 더 불리한가를 답하시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근거로 단순다수제와 선택투표제 중 어떤 선거제도가 정치양극화를 억제하는데 더 적합한가를 설명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